이안의 Media In Buddha

4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한줄요약

방대한 세계관을 바탕하고 있는 마블 시리즈에는 9000여 명의 히어로가 있다. 이중 불제자다운 영웅이 있으니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세계관은 〈법화경〉의 '회삼귀일' 사상과 맞닿는다.

'회삼귀일' 가르침 바탕한 히어로 수행자

동서양 남녀노소가 특별한 거리낌 없이 함께 즐기는 영화 장르 가운데 첫 손을 꼽을 수 있는 것이 아마도 공상과학으로 번역되곤 하는 SF(Science-Fiction) 장르다.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원인과 결과에 엄격한 과학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무한대로 펼쳐 실제가 아닌 세계를 만들어내는 허구적 이야기와 결합하면서 빚어내는 SF는 먼저 작가와 관객 사이에 어떤 전제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바로 세계관.

소설이든, 만화든, 영화든 SF 장르에서 자주 쓰이는 이 세계관이란 게 도대체 뭐지? 철학적 개념? 과학적 정의? 아니면 문화적 통념? 세계관을 그냥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굳이 어떤 장르나 특정 작품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라기보다는 저마다 속한 집단이나 믿는 종교, 이어 받은 문화의 역사적 맥락 등에 따라 관점은 다르니 딱히 합의할 성질의 개념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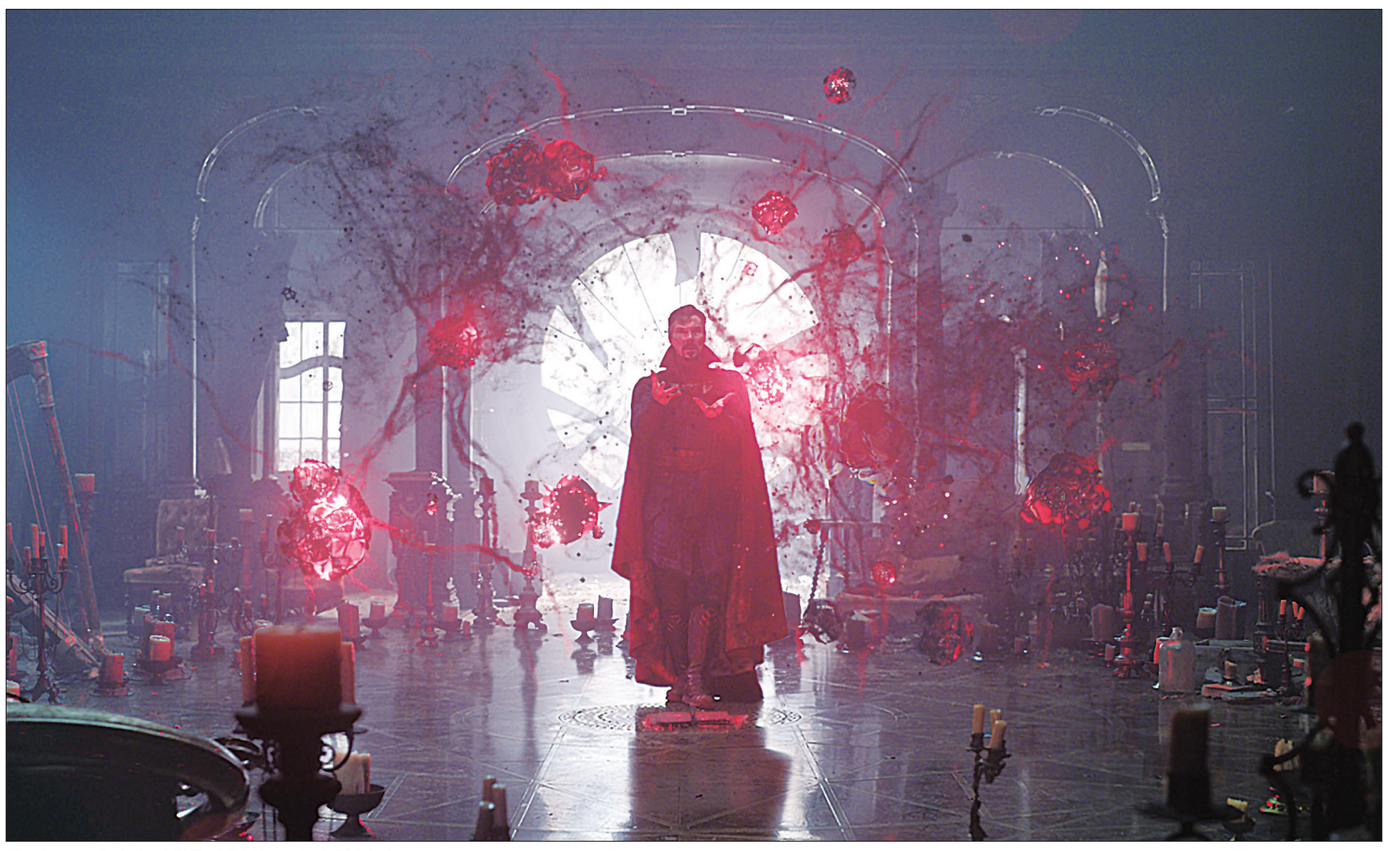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세계관이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사상으로 구성된 것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객관적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현실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세계를 보는 인간 주체에서 비롯된 창조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인지한 세계를 묘사하는 세계상과 다르다.

즉, 세계관이란 인간의 존재와 행위가 자신의 바깥에 펼쳐진 세계라는 환경에 대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의미 부여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세계와 인간의 위치에 대해 세계관을 제시하는 일은 철학이 다룰 몫이고, 객관적 실재인 세계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세계상을 밝히는 일은 자연과학의 몫이라고 여겨왔다. 이는 인간의 사고와 행위 전반에 대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세계관은 세계 전체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제공하면서 인간이 주위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보는 철학은 시대와 문화, 진영, 계급 등 온갖 사회적 맥락에 따라 권력을 다투는 문제가 되곤 한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SF 장르에서 왜 중요한 것이 되는 걸까?

SF에서 세계관은 현실 세계와 아주 다른 허구의 도시, 국가, 행성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세계와 역사를 가져오면서 일부 사실을 비틀기도 하고, 마법이나 초광속 등 판타지나 과학 소설 속 개념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세계를 먼저 설정한다. 현실 세계와 다른 사건 또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허구적 가공세계에 대한 일관된 설정을 일컫는다. 소설, 만화,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등에서 SF나 판타지의 배경이 되는 상상으로 창조된 허구 세계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것이다.

흔히 마블 유니버스 시리즈의 세계관을 문제 삼으면 지구 최고의 군수산업 사업가에서 인공심장을 가진 슈퍼 히어로로 거듭 나서 군산 복합 정치와 싸우는 아이언맨도, 소심한 과학자가 자기 안에서 공포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변신해서 이성을 잃고 폭주해서 악당을 패대기치는 헐크도, 거미 유전자 덕분에 놀라운 감각과 운동신경을 얻게 되어 평범한 청소년의 정신연령과 슈퍼히어로의 신체능력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스파이더맨도, 남보다도 허약한 청년이었다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과학 실험에서 영웅적 군인으로 거듭나서 전쟁을 이끌고 사라졌다 냉동상태에서 풀려나 특수방패 하나만 있으면 어떤 초능력과도 맞서 싸우는 불사조 캡틴 아메리카도, 심지어 이들이 우르르 한데 모여 외계에서 침략해오는 타노스 일당과 맞서 싸우는 다양한 캐릭터의 향연인 어벤저스 시리즈는 아예 이해할 수도 즐길 수도 없을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의 한 장면.

> 방대한 세계관 바탕한 마블 시리즈
> 불제자다운 영웅 '닥터 스트레인지'
> 2편서 '멀티버스' 세계관으로 확장
> 삼승은 결국 일승으로 귀결된다는
> 법화경 '회삼귀일' 사상과 맞닿아

이 시리즈 안에는 독자적인 시리즈의 주인공인 캐릭터들도 있고,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 사라지는 조연급 캐릭터도 있고, 조연급 캐릭터였다가 자기만의 시리즈로 따로 발전해 가는 캐릭터도 있다.

9000명에 이르는 마블 코믹스 캐릭터 가운데 불제자 하나쯤 있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다. 만화 캐릭터로 처음 등장한 1963년에는 서양 전승 마법사 이야기 설정에서 비롯된 모순된 인물이었던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다지 대중적 캐릭터가 아니었다. 생명을 중시해야할 의사가 자기 의술이 뛰어난 것만 믿고 오만방자한 삶을 살다가 자동차 사고로 자신감의 바탕이던 손을 다쳐 더 이상 수술을 못하게 되자 망가진 손을 치료하러 티베트의 카마르타지를 찾아가서 에이션트 원에게 훈련받아 마법사로 거듭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교적이라기보다 서양 마법사 이야기가 동양적 배경을 적당히 이용한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니 '소서러 슈프림'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 닥터 스트레인지가 21세기에 영화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타노스에게 뭇 생명의 절반을 잃게 된 세상을 구원하는 어벤저스 전체의 부활과 승리를 이끌게 된 것은 바로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능력과 구도의 자세, 중생에 대한 제도를 이끄는 책임감 덕분이다.

원작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마법사로 각성시키는 '태고로부터의 일자'라는 뜻을 영어로 옮긴 에이션트 원이라는 티베트 노인이 영화에서는 주홍색 승복을 입고 삭발한 승려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소림사'와도 같이 무예와 마법을 수행하는 제자들을 이끄는 선지식으로 바뀌면서 멀티버스 자체가 어벤저스를 승리로 이끌고 중생을 제도할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를 1960년대 이후 잊혀진 캐릭터에서 21세기 어벤저스를 윤회전생하게 만든 멀티버스라는 세계관은 불교에서는 낯설지 않은 세계관이다.

지금까지 인간 존재와 세계, 우주에 대해 밝히고자 했던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갖는 공통 관심사는 '우주와 자아는 무엇이며 어떤 관계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미래의 종교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교리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밝히면서 이런 조건에 맞는 미래의 종교를 일컬어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은 설명하기를 "우주 종교적 감정(Cosmic religious feeling)이란 인간이 갖는 그릇된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고 정신과 물질 양쪽 측면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신비와 장엄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종교적 진리와 과학적 진리는 다를 수 없다는 신념을 상대성 이론에 담아 펼친 것이고, 이 상대성 이론은 불교적 우주관인 '연기법'의 과학적 설명인 셈이라는 것이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비롯하는 제일 원인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라고 본다.

불교의 우주관은 여러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붓다의 가르침이 대부분 원형 그대로 담겨 있어 불교의 본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아함경〉 중 〈세기경〉에서는 순환우주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또한 '대승경전의 꽃' 또는 '모든 경전 중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화경〉에서는 '회삼귀일(會三歸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성문과 연각, 보살의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인 삼승은 결국 일불승으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이다.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했던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평행우주에서 우리는 이미 부처를 만났으나 지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이런 불교적 우주관에서 볼 때, 깨우침을 추구하는 대승적 불제자가 인간세상의 공업을 돌파하는 수행과 실천의 과정의 영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꿈에서 악마에게 쫓기는 소녀를 구하려다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던 것도 닥터 스트레인지 자신이고, 그 꿈은 그저 망상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했던 다른 우주이고, 그 우주의 경계를 넘어 악마를 피해온 지금 이 우주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결국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것이 처음 꿈속에서 소녀를 위험에 빠뜨렸다가 죽어야했던 다른 우주의 닥터 스트레인지였다는 설정은 '회삼귀일'의 SF 버전으로 보면 재미있다.

등장하는 에피소드에 따라 때로는 마녀 스칼렛 위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벤저스의 동료인 완다가 되기도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대적하는 캐릭터는 이 평행우주 멀티버스 안에서 또 다른 수행자가 된다.

빌런과 슈퍼 히어로를 오가는 '완다/스칼렛 위치'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이어서 쌍둥이 형제도 잃고, 안드로이드 연인이었던 비전도 잃고, 오직 다른 멀티버스에서 다른 완다의 두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현세에서 벗어나 멀티버스 안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완다는 광대무변한 우주를 지배할 최강 빌런의 위치까지 갔다가 마침내 윤회전생의 업을 스스로 끊어내기에 이른다.

"멀티버스에는 모든 것의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샘 레이미 감독의 말이 바로 이 세계관, 불제자에게 수행의 의미를 우주적 스케일로 보여주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의 영화적 화두일 것이다.

〈영화평론가〉

불교 상용의식집을 소개합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가족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漢文/한글(겸용)불교 상용의식집을 편찬한 성묵스님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신앙생활이 바뀌듯 경전도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한글을 보유한 민족으로 그동안 한문경전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알기쉬운 우리말 경전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말)예경/각청・수계/방생편(11)권과...천도/시식・장의편(12권)을 통합하여 2권으로 축소 편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곳 TEL. 054-974-1345 HP. 010-7144-7339 (총무)

아울러 함께 창종 발기인으로 종단을 시작하실 대덕스님들을 모십니다.
이미 종단은 2020년에 허가와 종단협회 가입까지는 완료됐으나 코로나 관계로 중단되어 다시 출발하려고 하오며, 현재 종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작부터 함께 하실 뜻이 있으신 대덕스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없이 연락주시면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 010-5277-8024 (성묵 스님)

